

산지생태축산 초지용 오차드그라스 신품종 ‘온누리 2호’의 수량성 및 사료가치 비교

지희정^{1*}, 이기원¹, 황태영¹, 김원호¹, 우제훈²,

¹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²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서론]

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을 활용하게 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악취 및 가축분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방목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을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초지 확보가 필요한데, 다행이도 우리 나라는 임야면적이 64%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이다. 초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초종은 오차드그라스로 연간 종자 소요량은 40톤 내외이다. 이중 대부분은 수입종인 암바와 포트맥이 차지하지만 여름철 긴장마와 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에 적응력이 떨어져 초지 부실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에 잘 적응하는 우리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입종 오차드그라스 품종보다 한국 기후에 잘 적응하는 오차드그라스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종과 새로 육성한 품종인 ‘온누리 2호’에 대한 수량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개발 품종인 온누리2호와 수입종인 포트맥을 대조품종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 진주, 천안, 평창 등 전국 4개소에서 수입종과 국내개발 품종들에 대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른 봄에는 계통별 월동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출수기에 초장, 병해, 충해, 습해정도, 도복, 수량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입품종인 포트맥은 초장이 98cm이고 온누리 2호는 95cm 였으며, 출수기는 포트맥이 5월 4일이고 온누리2호는 5월 4일로 1일 정도 차이를 보였다. 건물수량은 대비 품종인 포트맥이 ha당 14,702kg을 보여주었으며, 온누리2호는 15,980kg/ha로 9% 증수를 보였다. 한편 사료가치 중에서 건물 소화율은 포트맥이 66.2%이지만 온누리 2호는 70.1%, 조단백질은 포트맥이 9.6% 이고 온누리2호가 10%로 높았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503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1-580-6779, E-mail. cornhc@korea.kr